중동 지정학 쇼크에도 저가매수세 유입에 낙폭 축소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이란 전쟁에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, 증시는 저가매수세 유입

- 미 증시는 DOW -0.15% S&P500 +0.04% NASDAQ +0.36% 혼조. 2 월 27 일부터 누적 기준으로는 DOW -1.2%, S&P500 -0.4%, NASDAQ -0.6% 하락
- 주말중 미국-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갈등 격화에 따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시장 급변. WTI +6.6%, 천연가스 +4.6%, 금 +1.8%. 국채금리 상승 10Y 4.038%(+2.0%), 2Y 3.473(+2.8%)
- 주식시장도 에너지, 방산 등 일부 섹터 제외하고 대체로 약세 출발했으나, 글로벌 IB 코멘트와 유가 상승폭 진정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및 기술주 강세, 지수 낙폭 축소 및 상승 전환

지정학 공포심리 진정시킨 글로벌 IB 코멘트, 사태 장기화 여부가 향후 변수

- 글로벌 IB 들은 유가 상승 등을 경계하는 한편, 지정학 위기의 증시 영향은 역사적 패턴상 제한적이라는 코멘트
- 바클레이즈는 지정학 긴장의 장기 영향은 제한적으로, 투매보다는 포트폴리오 회복탄력성 유지 권고. JP 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봉쇄는 이란 경제에도 치명적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낮으며, 국제적 개입에 따라 1~2 주 내 상황 정리 전망. '빅쇼트' 스티브 아이스먼도 미-이란 전쟁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주장
- 향후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기간이 2 주 이상 지속될지 여부. 사태 장기화시 석유 및 가스 병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가 및 인플레이션, 나아가 금리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. 정치적으로는 이란의 체제 불확실성과 미국의 개입 수위 등이 변수

유가 경계 가운데,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난 '인플레 우려'

- 2/27 발표된 1 월 PPI YoY +2.9%, MoM +0.5% 모두 컨센 상회.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 MoM +0.8%로 전체 지수 상승 견인. PCE 물가에 반영되는 포트폴리오관리 MoM+1.5% 4 개월 연속 상승. 다만, 1 월 근원 PPI 는 MoM 0.3%로 컨센 하회
- 2 월 ISM 제조업 PMI 52.4 전월비 소폭 둔화했으나, 컨센 상회하며 확장기조 유지. 세부지표로는 물가 59.0→70.5 급등, 고용지수 48.1→48.8 개선되었으나 위축국면 유지, 신규주문 57.1→55.8 전월비 감소했으나 컨센은 상회
- 2 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 51.6, 전월/컨센 상회

특징주: 지정학적 쇼크에 방산, 에너지 섹터 상승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PLTR	팔란티어	+5.8%	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방산주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상승. 록히드마틴(+3.4%), RTX(+4.7%) 등 방산 섹터 주가 강세
NVDA	엔비디아	+3.0%	네트워킹 사업 부문 강화 위해 코히런트(+15.4%)와 루멘텀(+11.8%)에 각 $2B 투자 발표.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 네트워킹 제품 확보. 한편 모건스탠리는 동사를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재선정
XOM	엑손모빌	+1.1%	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영향에 주가 상승. 셰브론(+1.5%), 코노코필립스(+4.2%) 등 에너지 섹터 주가 강세
NCLH	노르웨이안크루즈	-10.5%	컨센 상회하는 4분기 EPS 발표에도 불구,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우려에 주가 하락. 카니발(-7.7%), 로얄캐리비안(-3.3%) 등 크루즈 기업 주가 약세
BRK-B	버크셔해서웨이	-4.9%	보험 부문 부진으로 4분기 영업이익 전년대비 30% 감소 및 자사주 매입이 전무했다는 소식에 주가 하락. 이번 실적은 워렌버핏의 CEO로서 마지막 분기 실적